뉴라텍/NEWRACOM 소식 (2019년 8월)

2019. 8. 27.

◇ 日 사일렉스테크놀로지, 장거리 와이파이 칩셋에 대한 첫 번째 구매 발주

○ 뉴라텍의 미국 자회사 **뉴라컴은 지난 8월 13일 글로벌 무선통신솔루션 대기업인 일본 사일렉스테크놀로지(Silex Technology)로부터 국제표준(802.11ah)기반 장거리 와이파이 헤일로우(Wi-Fi HaLow™) 칩셋(제품명 : NRC7292)에 대한 첫 번째 구매발주서를 접수**함.

○ 이번 구매 발주 건은 뉴라컴의 일본시장 유통 파트너인 애로우일렉트로닉스(Arrow Electronics)를 통하여 접수한 것으로 에로우일렉트로닉스는 뉴라컴으로 납품받은 NRC7292 칩셋을 사일렉스테크놀로지에 납품하게 됨. **이번 납품 건은 뉴라텍과 뉴라컴이 세계 최초로 출시한 Wi-Fi HaLow 칩셋의 관련 시장에서의 첫 번째 납품 사례**로 그 의미가 큼.

○ 사일렉스테크놀로지는 일본 내 90여 개의 유무선통신사업자, 연구기관, 대학 등이 주도하여 설립·운영되고 있는 『802.11ah추진협의회』 내 핵심 멤버사로 그간 뉴라컴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Wi-Fi HaLow 제품에 대한 시장에서의 테스트 및 검증을 수행해 온 바 있음. 사일렉스테크놀로지는 뉴라컴으로부터 납품받은 칩셋을 탑재한 Wi-Fi HaLow 통신 모듈을 제작하여 고객사인 사물인터넷(IoT) 디바이스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 판촉 및 납품을 진행할 예정임. 특히, 현재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4개의 상용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 시장에서의 Wi-Fi HaLow 제품 확산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임.

○ 이번 납품 건은 **사일렉스테크놀로지가 Wi-Fi HaLow 모듈의 대량생산을 준비하기 위한 초기 생산시스템 구축용 초도 물량**으로서 비록 주문 수량이 3천여 개로 소규모이고 계약금액도 미화 약 4만 달러에 불과하지만, **향후 대량생산이 시작되면 그 물량과 금액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**됨.

○ 사일렉스테크놀로지는 올 연말까지 뉴라컴 칩셋을 탑재한 Wi-Fi HaLow 모듈에 대한 대량생산 준비를 마칠 예정이며, 2020년 2사분기부터는 미국, 유럽 및 호주 시장을 중심으로 대량생산 및 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임. 현재 초기 생산물량은 연간 15만대로 예측하고 있으나, 글로벌 시장 및 고객사 확산으로 인하여 그 물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○ 뉴라텍·뉴라컴 이석규 대표이사는 "**시장에서의 이러한 작은 태동은 당사 제품의 빠른 시장 확산 및 다양한 고객 확보에 기폭제가 될 전망**"이라면서 "현재 전 세계 수십 곳을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활동 및 판촉을 진행하고 있는 바, **연말까지 다수의 고객사 대상으로 대량 구매계약 체결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**한다."고 말함.